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 환경학 발전·연구활동 장려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와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수상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에서 ‘2025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원자가 금속 화학종(HVM)의 반응 원리를 규명해 오염물질을 표적하는 ‘타깃형 수처리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2025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에서 강석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왼쪽부터),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원재 두산연강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연강재단

고원자가 금속 화학종은 높은 산화상태의 금속 이온으로, 특정 오염물질

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를 빠르게 산화·분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조강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극소량의 귀금속이 함유된 산화전극을 활용해 폐수를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수소 발생 효율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두산연강환경학술상은 두산연강재단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추진해 온 환경안전연구비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2019년 제정된 상으로, 국내 환경학 발전과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1위

현대자동차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5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



콜마비엔에이치,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콜마비엔에이치는 품질 경영과 혁신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마비엔에이치



롯데유통군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

롯데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7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학술대상은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왼쪽 네번째)가 수상했다. 한 교수는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총 18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유통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려

천안·청주 청소년에 문화교육 제공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천안·청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통 클래식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두 지역에서 선발된 57명의 앙상블 단원이 참여해 그동안 배운 교육 내용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단원들은 7월부터 악기 레슨, 합주, 음악이론 수업 등을 소화했으며, 두 차례의 합동 연습을 거쳐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샤르팡티에 ‘테 데움’,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 뮤지컬 지킬앤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와 ‘위 아 더 챔피언스’ 등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공연을 펼쳤다. 특히 ‘팬텀싱어2’ 출연자인 테너 황현한이 협연해 무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이 천안과 청주 앙상블의 대표 단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주회에 앞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이 천안·청주 대표 단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김 단장은 “조화로운 화음은 단원들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만든 결과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화의 ‘함께 멀리’ 철학을 담고 있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의 성장과 우리사회의 선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태국총리 예방

K시티 조성해 韓 업체 투자확대 기대

대우건설은 지난 18일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쿤(A 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의 52년 건설 노하우와 최근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하여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K컬처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왼쪽)과 태국 아누틴 찬위라쿤 총리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계 사업을 확장·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누틴 찬위라쿤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엔솔,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회계 투명성 제고·신뢰 강화 기여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체계적인 재무공시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은 금융감독원이 국제 표준 데이터 기반 재무공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재무공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

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의 회계·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디지털화해 컴퓨터가 자동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언어다. 기업마다 다른 재무 정보 양식을 표준화해 투자자의 분석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감독원의 재무공시 디지털화 정책에 맞춰 2023년 말부터 감사보고서 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XBRL 기반으로 전환했다.

/원관희 기자

동아제약,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품질 경쟁력 입증

동아제약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품질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동아제약은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 천안공장 임팩트분임조, 이천공장 도전분임조 등이 출전했다. 3개 팀 모두 수상팀으로 이름을 올리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